

탄탄한 스토리에 화려한 액션·반전 묘미까지...15년 만에 찾아온 '만주 웨스턴'

박현민의 연구소(연예를 구독하소)

-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 칼의 소리'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된 영화다. '조용한 가족' '장화, 홍련' '달콤한 인생'의 김지운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송강호·이병헌·정우성이 함께 출연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놈놈놈'으로 약칭되는 해당 영화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나 생생히 잔상이 남는 것은 '놈놈놈'의 장르적 특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1960~1970년대 한국과 중국에서 유행했으나 21세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만주 웨스턴' 장르를 오마주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개봉했던 류승완 감독의 코믹 액션 영화 '다찌마와 리: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역시 이와 동일한 장르에 속한다. 한국인이 미국 특유의 서부영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선 만주의 넓은 황무지가 유일한 대안이었던 상황이기에, 그러한 연유로 만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생겨나 '만주 웨스턴'이라는 독자적 장르가 탄생하게 됐다.

지난 22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 칼의 소리'는 그러니깐 '놈놈놈' 이후 거의 15년 만에 나온 몹시도 반가운 만주 웨스턴 장르의 작품이다. 어쩌면 운이 좋아 이후 15년간 유사 장르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다. 게다가 '도적: 칼의 소리'가 웬만큼 완성도만 확보된다면 누군가의 뇌리에 15년 정도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된다. '도적: 칼의 소리'는 1920년 중국의 땅, 일본의 돈, 조선의 사람이 모여든 무법천지 간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된 이들이 벌이는 액션 활극을 표방한다. 간도를 배경으로 일본군, 독립군, 청부업자, 마적, 그리고 이주 조선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참고로 타이틀 '도적'은 물건을 훔치는 도적(盜賊)이 아닌 '칼 도(刀)'와 '소리 적(囁)'으로, 그래서 '도적: 칼의 소리'다.

나름의 특이점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시대극 주인공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인 것과 달리 '도적: 칼의 소리' 주인공 이윤(김남길)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도적단의 두목을 자처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노비 출신으로 자신이 모시던 도련님 이광일(이현욱)을 따라 일본군이 됐다가 간도에서 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이라는 설정. "옳고 그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게 이를 소화한 배우

놈놈놈 넘을까

김남길의 설명이다. 비로소 무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책하는 순간에 직면한 이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먹먹하다. 나라가 아니라 그저 주변 사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택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설득된다.

이윤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숨기고 일본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남희신(서현), 간도에 자리 잡은 의병장 출신 조선인 마을의 지주 최충수(유재명), 대동아공영을 위해 같은 조선인의 고문도 서슴지 않는 대일본제국 19사단 보병 37연대 소좌 이광일(이현욱), 그리고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총잡이 언넌이(이호정)까지 제각각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서로를 적대하거나 연대하는 모습이 극적으로 처절하다.

'도적: 칼의 소리'는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로 호흡을 맞췄던 황준혁 감독과 한정훈 작가의 작품이다. 이 때문에 현란하고 스타일리시한 시퀀스가 때회 다채롭게 펼쳐져 인상적이다. 이윤의 총 원체스터, 최충수의 활 흑각궁과 도검 환도를 활용한 액션을 비롯해 산군(김도윤)의 저격, 초랭이(이재균)의 도끼질, 금수(차엽)의 샷건과 맨손 액션이 화면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이윤의 롱테이크 액션, 언넌이의 실루엣 액션 등은 또 다른 볼거리다. 또한 간도선 철도 부설 자금을 탈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개되는 반전의 묘미는 황 감독과 한 작가의 또 다른 호흡작이기도 한 '38 사기동대'의 치밀한 사기극을 떠올리게 한다.

모래바람이 이는 황량한 불모지, 철도 선로가 깔린 외딴 역사, 북간도 최고의 도시 명정촌 등 로케이션 곳곳에 한국형 웨스턴 장르의 매력을 반영한 것은 '킹덤' 시리즈 이후경 미술감독, 공기 중 부유하는 모래 먼지와 태양빛을 구현하고자 20% 정도의 농도를 가진 앰버(amber) 필터를 사용하고 넓은 황야와 액션을 담기 위해 2.40대 1 시네마스코프 촬영 및 광각렌즈와 드론까지 결들인 것은 'SKY 캐슬' '응답하라' 시리즈 오재호 촬영감독의 노련한 판단에서 비롯됐다.

제작진과 배우가 만들새에 쏟아부은 노력은 충분하다. 총제작비 360억 원에 달하는 대작 '도적: 칼의 소리'가 영화 '놈놈놈'을 잇는 만주 웨스턴 장르를 대표하는 시리즈로 남을 수 있을지는, 이제 오롯이 대중의 선택에 달렸다.



필자 박현민은 잡식성 글쓰기 종사자이자, 14년 차 마감 노동자다. 가끔 방송과 강연도 하며, 조금 느릿하더라도 밀도가 높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나쁜 편집장』을 포함해 총 3권의 책을 썼다.

1920년대 간도 배경 총제작비 360억 원 대작...시네마스코프·드론 촬영 효과 극대화...대중의 선택은?